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완전 학습,  
학교 시험 완벽 대비

# 자습서

## 고등학교 문학



### 정재찬 교과서편

교과서 전 지문 완벽 분석  
및 활동 풀이

핵심 정리로 개념 잡고,  
확인 문제로 실력 완성

다양한 단계별 문제로  
탄탄한 내신 대비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교과서 완벽 분석 &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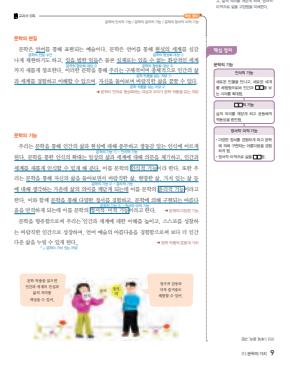
#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문학은 인간의 삶과 경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예술·철학·종교와 같은 전문적 생활과는 달리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고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면에서 예술적 성격도 덤없다. 그래서 문학은 중요하다. 성직자는 아니라 말할 수도 드물 중요하다. 문학은 사랑, 사랑, 그리고 그 고요를 다양한 언어로 우리 민족 속에 '온', '온', 비비는 가사를 인식하고 통찰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하다는 문학은 예술·철학·종교와 함께 인간의 삶과 경험을 다룬다.



- 문학적 전통적,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있음
- 문학적 능력에 따라 작품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면이 있다.
- 다양한 작품에 충분히 의도 고려한 경영·마케팅 수준과 생산



[ 단원의 길잡이 ]

대단원 길잡이 글을 통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소단원 도입 ]

문학 작품 학습에 필요한 기본 이론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소단원 학습 ]

본문 학습

교과서의 전 지문을 완벽히 분석하고, 교과서 읽기 중 질문, 어휘·어구 풀이, 교과서 핵심 내용을 도식화한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제공하여 내신의 기본을 탄탄하게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할습 활동

시험에 많이 활용되는 학습 활동의 예시 답안을 제시하여 교과서 활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학사 문학 자습서는 자습서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친절하게 분석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의 핵심 포인트를 빈칸을 차우며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대비하는 실전 문제

## 시험을 대비하는 실전 문제

[ 소단원 평가 문제 ]

소단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과 유형의 핵심 문제를 풀어 보  
며 자신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  
습니다.

작품 엮어 읽기

작품의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엮어 읽을 작품의 기본 정보와  
줄거리를 제시하여 문학을 효율  
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 〔 대단원 평가 문제 〕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합 지문으로 점검하는 실전 문제입니다. 고난도 실전 문항으로 시험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원을 마치며

엮어 읽을 작품의 지문과 해설  
활동 예시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대단원 복합 지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책의 차례

##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 (1) 문학의 가치

작품 1_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10
작품 2_ 성난 풀잎   이문구	16
작품 3_ 다음에, 나머지 반도   성석제	22
<b>소단원 평가 문제</b>	30

###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작품 1_ 길 _김소월	36
작품 2_ 엄마의 말뚝 2   박완서	42
작품 3_ 우리들의 블루스   노희경	54
작품 4_ 파초   이태준	66
<b>소단원 평가 문제</b>	74

<b>대단원 평가 문제</b>	85
------------------	----

##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 1_ 속미인곡   정철	96
작품 2_ 천변 풍경   박태원	104
<b>소단원 평가 문제</b>	118

### (2)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작품 1_ 즐거운 편지   활동규	122
작품 2_ 엇박자 D   김종혁	128
<b>소단원 평가 문제</b>	138

### (3) 문학과 매체, 작품의 재구성·창작

작품 1_ 남한산성   김훈 원작/황동혁 각본	142
작품 2_ 흥보가   작자 미상	152
<b>소단원 평가 문제</b>	166

<b>대단원 평가 문제</b>	173
------------------	-----

##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 4 문학과 삶



### (1) 서정 갈래

작품 1_ 찬기파랑가   충담사/김완진 해독	184
작품 2_ 정석가   작자 미상	190
작품 3_ 어부사시사   윤선도	198
작품 4_ 참회록   윤동주	204
작품 5_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210
<b>소단원 평가 문제</b>	219

### (2) 서사 갈래

작품 1_ 주몽 신화   작자 미상/일연 편	226
작품 2_ 이생규장전   김시습	234
작품 3_ 태평천하   채만식	248
작품 4_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264
<b>소단원 평가 문제</b>	278

### (3) 극 갈래

작품 1_ 통영 오광대   작자 미상	284
작품 2_ 원고지   이근삼	298
<b>소단원 평가 문제</b>	313

### (4) 교술 갈래

작품 1_ 주옹설   권근	318
작품 2_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김연수	324
<b>소단원 평가 문제</b>	332
<b>대단원 평가 문제</b>	339

### (1) 자아·타자·공동체와 문학

작품 1_ 수오재기   정약용	354
작품 2_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귀자	362
작품 3_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이문재	378

### (2) 문학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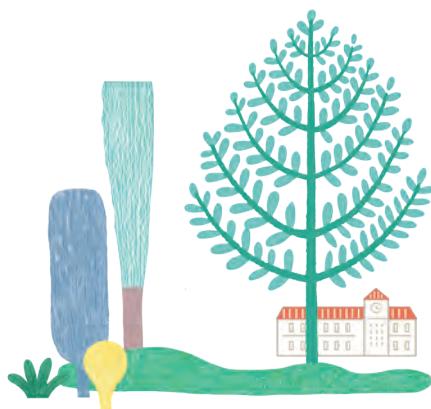
온라인 독서 모임으로 문학을 나눠요

• 감동 나누기_ 가 보지 못한 길   프로스트	386
• 생각 나누기_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김초엽	388
• 창작 나누기	392

### 대단원 평가 문제

정답과 해설

2







# 문학의 본질과 양상



( 1 ) 문학의 가치

( 2 ) 문학의 갈래와 맥락

#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 문학이란 무엇일까?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경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 철학, 윤리학 같은 인문적 성격이 있다.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문학의 본질 ① – 인식적·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예술적 성격도 있다. 그래서 문학은 풍요롭다. 성격만이 아니라 양상 또한 풍요롭다. 문학은 서정, 문학의 본질 ② – 정서적·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서사, 극, 교술 등 다양한 갈래로 우리 인생 속의 ‘진, 선, 미’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풍요로운 문 문학의 네 가지 갈래

학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성과 상상력, 인성과 윤리 의식을 길러 보도록 하자. → 문학이 담고 있는 풍요로운 가치와 다양한 양상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정서적·미적 기능 단원의 학습 목표

### • 대단원 한눈에 보기 •

#### [ 1 ] 문학의 가치

-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희덕
- 작품 2 성난 풀잎 | 이문구
- 작품 3 다음에, 나머지 반도 | 성석제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정서적·미적 기능

#### [ 2 ] 문학의 갈래와 맥락

- 작품 1 길 | 김소월
- 작품 2 엄마의 말뚝 2 | 박완서
- 작품 3 우리들의 블루스 | 노희경
- 작품 4 파초 | 이태준

•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그 특성  
•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 ( 1 ) 문학의 가치



## 소단원별 학습 목표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돋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교과서 12쪽

### 학습 열쇠

문학의 인식적 기능 / 문학의 윤리적 기능 /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

#### 문학의 본질

문학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이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 현실의 세계를 실감 문학의 전달 수단 나게 재현하기도 하고, 있을 법한 일들은 물론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환상적인 세계 문학의 형상화 대상 ① 문학의 형상화 대상 ② 문학의 형상화 대상 ③ 까지 새롭게 창조한다. 이러한 문학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이며 종체적으로 인간의 삶 문학 작품을 읽는 깨닭 ① 과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바람직한 삶을 꿈꿀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읽는 깨닭 ②

→ 문학이 언어로 형상화하는 대상과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깨닭

#### 문학의 기능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 삶과 현실에 대해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문학을 통한 인식의 확대는 일상의 삶과 세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 한다. 또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람직한 삶, 현명한 삶, 가치 있는 삶 등 문학의 기능 ② – 윤리적 기능에 대해 생각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이를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문학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문학에 의해 구현되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는데 이를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이라고 한다. → 문학의 다양한 기능

문학을 향유함으로써 우리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언어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함으로써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문학이 가치 있는 깨닭 』

→ 문학 작품의 효용과 가치

문학 작품을 읽으면  
인간과 세계의 진실과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



정서적 감동과  
미적 즐거움도  
체험할 수 있어.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희덕

이 작품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자 한 시이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와 깨달음을 파악하고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 부정적 표현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대상의 복잡한 내면 –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판단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시적 대상을 비유함. – 인식의 대상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상에 대한 태도 – 거리감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 대상에 대한 선입견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소통 단절

→ 복숭아나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소통하지 못함.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대상의 본질 인식(타인의 진정한 모습)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시작됨.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갖게 된 이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의 심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을 이해하는 데

→ 복숭아나무의 참모습 발견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❶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

→ ‘나’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관계 형성



## 핵심 포인트

-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과 깨달음
- 시어의 함축적 의미
- 도치법으로 인한 효과

## 문학 개념어 의인법

비유의 하나로,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에 사람과 같은 성질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며 흘러간다.

예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 참고 활유와 의인

원관념		보조 관념	
활유	무생물	→	생물
의인	무생물	→	사람

## 문학 개념어 도치법

‘도치법’은 문장의 어순을 비정상적으로 바꾸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러한 도치를 사용하면 해당 구절의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거나 기존의 단조로운 표현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

예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어휘·어구 풀이

❶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 복숭아나무 그늘’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화자와 대상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치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과 깨달음 핵심 1

##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

⋮

'복숭아나무'에 관한 오해와 편견

↓

'복숭아나무'에 관한 재인식·깨달음

↓

'복숭아나무'에 관한 이해와 공감

## 깨달음

선입견을 품고 대상(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시어의 함축적 의미 핵심 2

흰꽃과 분홍꽃	수천의 빛깔
피상적으로 드러난 대상의 모습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모습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	그 복숭아나무 그늘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거리감,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의 모습, 대상에 대한 선입견	화자와 대상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 도치법으로 인한 효과 핵심 3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서 문장의 어순을 비정상적으로 바꾸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 방식인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시적 여운을 남기고 의미를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복승+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시상 전개 방식

'시상'은 시에 나타난 시인의 생각과 감정을 말한다.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시상을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 시구나 소재를 배열해 가며 한 편의 시로 조직하는데,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시의 조직 방법'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한다. 시 속에서 변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시상 전개 방식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의 대립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지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⑤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형성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02 이 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통해 화자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을 통해 화자가 지닌 소망을 대상에 투영하고 있다.
- ④ '참 오래 걸렸습니다'를 통해 화자가 대상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통해 화자가 대상 가까이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 03 &lt;보기&gt;를 바탕으로 이 시의 시어 및 시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이 작품은 자연물과 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여 복숭아나무로 비유된 대상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① '복숭아나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타인을 의미하는군.
- ②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한 이유에 해당하는군.
- ③ '수천의 빛깔'은 화자가 가진 선입견만으로 판단한 타인의 모습이로군.
- ④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은 화자가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한 이후 알게 된 것이로군.
- ⑤ '저녁'은 타인과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시간을 뜻하는군.

## | 서술형|

## 04 이 시에서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서술하시오.

##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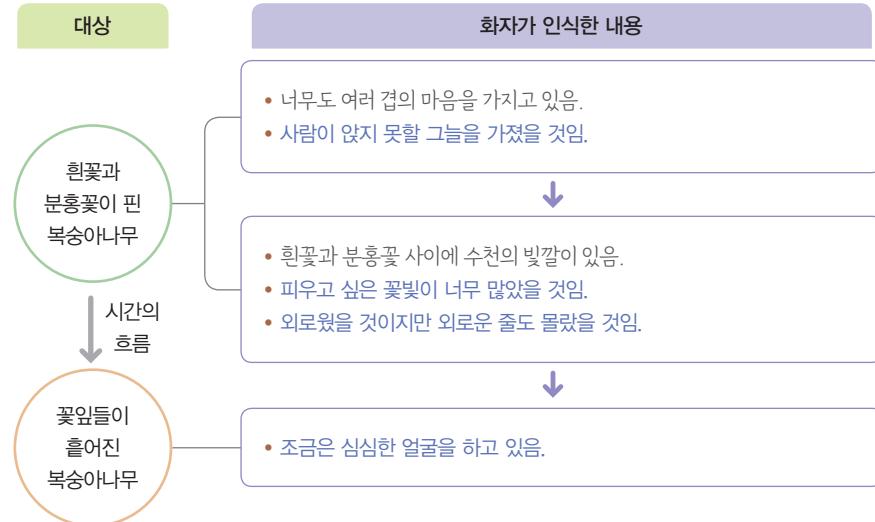
- 화자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의 태도를 비교할 것.
- 화자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는 시구를 인용할 것.

작품 속으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확인해 보자.

(1) 이 작품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우리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인식적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어. 또한 이러한 깨달음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



(2) (1)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의 시구를 써 보자.

예시 답안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3) (1),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은 화자는 이제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와 교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깨달음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새롭게 인식해 보자.

(1) 다음 시구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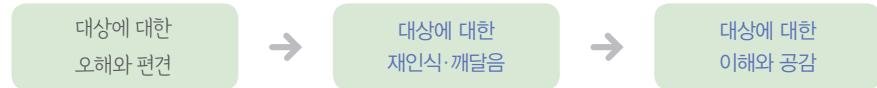
시구	함축적 의미
흰꽃과 분홍꽃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모습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거리감</li> <li>•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의 모습</li> <li>• 대상에 대한 선입견·편견</li> </ul>
수천의 빛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모습



이 작품에서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은 자연물인 '복숭아나무'이지만, 이는 인간이 흔히 마주 대하는 모든 존재, 혹은 인간의 삶 등으로 확장해 볼 수 있어.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자연물에 빗대어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시구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해.

(2)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3) 화자의 깨달음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고, 이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예전에 나의 아버지는 늘 엄하셔서 가까이하지 못할 만큼 무서웠기에, 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보며 아버지가 그동안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늘 거리감이 느껴졌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든든한 울타리로 느껴진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 작품의 화자처럼 선입견을 지니고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그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이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작품 너머로**

### 3 문학 작품을 읽고 얻은 깨달음이나 새롭게 인식한 점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1) 최근에 읽은 문학 작품 중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떠올려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안도현의 「간격」이라는 시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2) 위에서 말한 문학 작품 중 하나를 골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개하는 글을 써 보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예시 답안** 안도현의 「간격」은 숲의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올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친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작품이다.

**참고 자료**

**안도현, 「간격」**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산불이 났던 숲의 나무를 관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안도현(1961~)** 전통적 서정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 체험과 사회의 현실을 섬세한 감수성으로 그려 내고 있다.

**작품 개관** 안도현, 「간격」

장르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성찰적
어조	독백적, 성찰적
주제	적당한 간격의 소중함에 관한 깨달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무를 인격화하여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함.</li> <li>새롭게 깨달은 바를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황과 대비하여 표현함.</li> </ul>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희덕

##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성찰적, 비유적
제재	복숭아나무		
주제	대상(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li> <li>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냄.</li> <li>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함.</li> </ul>		

## ●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시상 전개	인식	태도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li> <li>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음.</li> <li>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치며 거리를 둠.</li> </ul>
'복숭아나무'에 대한 재인식·□□□ <sup>①</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li> <li>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그를 이해하게 됨.</li> </ul>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 <sup>②</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짐.</li> </ul>

## ● 표현상의 특징

시구	표현상의 특징
-습니다 / -입니다	경어체와 독백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고백함.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화함.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대상을 □□□ <sup>③</sup> 하여 표현함.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sup>④</sup> 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함.

## ● 시어·시구의 함축적 의미

시어·시구	함축적 의미
복숭아나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타인)
흰꽃과 분홍꽃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모습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거리감,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의 모습, 대상에 대한 선입견·편견
수천의 빛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모습
저녁	대상과의 □□□ <sup>⑤</sup> 이 사라진 시간, 조화로운 어울림의 시간

## 작품 읽어 입기

### 작가의 다른 작품

#### 「내 유년의 울타리는 텁자나무였다」\_나희덕

이 작품은 나희덕의 또 다른 작품으로, 텁자나무에 얹힌 유년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삶에서 고통을 주는 '가시'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일상의 경험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끌어 내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고통을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서정적, 회상적, 체험적, 교훈적
제재	텅자나무		
주제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시'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함.</li> <li>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소재의 의미를 구체화함.</li> <li>텅자나무와 관련된 일상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교훈을 끌어냄.</li> </ul>		

### 작품 읽어 보기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 **로트레크(1864~1901):** 프랑스의 화가. 파리 몽마르트에서 댄서, 가수, 창부 따위의 풍속을 그렸다. 작품으로 「물랭 루주」가 있다.

### 소재가 유사한 작품

#### 「나와 남」\_장영희

이 작품은 장영희의 작품으로,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이다. 글쓴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나'의 기준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나'와 '남'은 점 하나의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입장 바꾸어 남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수필
성격	사색적, 교훈적
제재	'나'와 '남'
주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자세의 필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화와 강의 사례를 소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li> <li>두뇌 과학자들의 연구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임.</li> <li>보편적으로 경험할 법한 상황을 제시하여 공감을 유도함.</li> </ul>

### 작품 읽어 보기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겠다는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중략)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용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것, 그냥 용서해 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 소단원 평가 문제

### [01~04]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  
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01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겹의 마음’은 대상이 지닌 복잡한 내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흰꽃과 분홍꽃’은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외적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사람이 앓지 못한 그늘’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수천의 빛깔’은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깨달은 대상의 존재 가치라 할 수 있다.
- ⑤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는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02 이 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경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달하려는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03 ⓑ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와 ⓒ 모두 대상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공간이다.
- ② ⓑ는 ⓒ와 달리 화자가 가고 싶었던 이상적인 공간이다.
- ③ ⓑ는 ⓒ와 달리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했던 공간이다.
- ④ ⓒ는 ⓑ와 달리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비애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는 ⓑ와 달리 대상에 대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 04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할 때, ⑦에 해당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 쓰시오.

#### 보기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에 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로 비유된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는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으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뒤 비로소 Ⓡ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시간 속에서 대상과 교감하게 된다.

## [05~08]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로부터 ⑦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폐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⑧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⑨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⑩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⑪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 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려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올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웃이나 움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흥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⑥ 한갓 잡풀일망정 뽑하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 0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자연에 대한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인용된 문장이 대변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농부’와 ‘나’의 관점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⑤ ‘성난 풀잎’이라는 의인화된 서술자를 설정하여 현재의 문제가 지난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06 <보기>를 참고하여 ⑩~⑫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생태 문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문학이다. 인간 중심적 관점을 비판하고, 모든 존재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한다.

- ① 글쓴이는 ⑩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⑪는 자연을 인간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③ ⑫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군.
- ④ 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닌 필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⑤ 글쓴이가 ⑭와 같이 생각한 것은 잡풀의 입장에서 한 생각이군.

## 07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⑮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 ② 역지사지(易地思之)
- ③ 공평무사(公平無私)
- ④ 식자우환(識字憂患)
- ⑤ 측은지심(惻隱之心)

# 단원을 마치며

교과서 68~71쪽

- ① 다음은 개[犬]와 이[蠶]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나그네와 '나'의 대화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슬견설(蠶犬說) \_ 이규보

한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엊저녁에 어떤 불쾌하게 생긴 남자가 큰 봉등이로 떠돌이 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손님이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함.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앉아서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것을 봤는데,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 ‘개’와 대조되는 존재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 ‘나’가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함.

손님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하찮은 별례 아닙니까. 나는 덩치가 큰 짐승이 죽는 걸 개와 이의 죽음이 다르다고 여기는 손님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대꾸 하다니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오.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말에 대해 그렇게 모든 생명은 소중함.

대꾸한 것이지, 어떻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겠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의 열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시구려. 어디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것이지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제각기 숨과 기(氣)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소?

그대는 물러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달팽이 뿔을 쇠뿔같이 보고, 메추라기와 봉(鵬)새를 평등하게 보게 된 연후라야 나는 그대와 도(道)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오.”

▶ ‘나’가 손님에게 개와 이의 죽음이 같음을 설명함.

**봉새** 북쪽 바다에 살고 있다는 전설 속의 커다란 새. 한번에 구만 리를 날아 오르는데, 이때 날개는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고 삼천 리 먼 곳까지 파도가 일어난다고 한다.

##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수필, 설(說)

성격 교훈적, 사변적, 풍자적, 설득적, 우의적

주제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 글쓴이와 손[客]과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함.
-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함.
-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얻어 낸 깨달음으로 교훈을 전달함.

## 해제 21쪽 참조

**예시 답안** 이 글의 글쓴이는 사물에 대하여 판단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평소 모든 인격과 생물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글을 감상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다음은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작품이다. 화자가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목계 장터 \_ 신경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 방랑과 유랑의 이미지 〕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한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 정착의 이미지 〕 운율 형성(대구법)

청룡 흑룡 흘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유랑 의식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 방물장수의 서러운 유랑의 삶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 : 정착의 이미지 〕

강은 날더러 잔들이 되라 하네

**예시 답안** 이 소설은 한국 전쟁의 비극과 이산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소설로 '아주머니'가 겪고 있는 갈등은 모두 한국 전쟁에서 비롯된다. '아주머니'는 이산의 고통과 이에 따른 그리움을 해소하고자 '나'의 집으로 '흰 철쭉'을 해를 거르지 않고 보러 온다. '흰 철쭉'은 사건 진행에 핵심적인 요소이자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소재이기도 하다. '흰 철쭉'은 '아주머니'의 그리움을 달래는 요소로 친정어머니와 고향을 상징하기도 하고, '나'와 '아내'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새로운 관계를 부여하기도 한다.

- ④ 다음은 말을 빌려 탄 개인적 경험을 소재로 하여 소유에 구애받지 않는 삶의 자세를 제시한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의 삶의 자세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 차마설(借馬說) \_ 이곡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더러 남의 말을 빌려서 탄 말을 빌려 타게 된 이유다. 그런데 「아둔하고 여원 말을 빌리면, 비록 일이 급해도 감히 둔하고 여원 말과 준마를 뱋을 때의 심정을 대조적으로 표현함.」 채찍을 가할 수 없고, 항상 쓰러질까 조심하며, 개천이나 구렁을 만났을 때는 곧 내리므로 아직은 뉘우친 일이 없다. 그러나 급히 높고 귀가 날카로우며 몸이 날쌘 놈을 빌리면, 흡족하여 마음대로 채찍을 가하고 바삐 고삐를 당기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는지라 심히 통쾌하기는 하나, 낙마(落馬)의 위험은 면치 못한다. ▶ 둔한 말을 빌려 뱋을 때와 날쌘 말을 빌려 뱋을 때의 심리 아, 사람의 마음의 옮기고 바뀜이 어찌 한결같이 이러한가? 개인적 경험이 보편적 깨달음으로 확대됨. 남의 것을 빌려 하루아침의 소용에 대비하는 데도 오히려 이러한 하물며 참 자기 소유의 것임에랴. 자신의 소유물일 경우에는 심리 변화가 클 것임.

그러나 사람이 소유한 바 그 어느 것이 남에게서 빌린 게 아니겠는가? 군왕(君王)은 백성에게 힘을 빌려 높이 되고, 신하(臣下)는 군왕에게 권세를 빌려 귀히 되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비복(婢僕)은 주인에게, 그 빌리는 바가 많으나 그것을 모두 제 소유로 생각하고 끝내 반성하지 않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 잘못된 소유 관념에 대한 비판

그러다 잠깐 사이에 그 빌린 바를 되돌려주게 되면, 만방(萬邦)의 군왕도 필부(匹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집안도 고신(孤臣)이 되니, 하물며 하찮은 백성임에랴? 설의적 표현

『일찍이 맹자가 말하기를

"오래 빌려서 돌려주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제 소유가 아닌 줄을 알겠는가?" ▶ 세상 만물은 빌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착각해서는 안 될.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성 부각 했다. 내 이에 느낀 바 있어 「차마설(借馬說)」을 지어 그 뜻을 넓혀 본다.

▶ 이 글을 쓴 이유

**차마설** 말을 빌려 탄 일에 관한 이야기.

**미혹** 무엇에 훌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필부**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

**백승의 집안** '백승(百乘)'은 '백 대의 수레'라는 뜻으로, '백승의 집안'은 수레 백 대를 갖출 수 있는 가문, 즉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가진 집안을 의미함.

**고신**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

####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수필, 설(說)

**성격** 사색적, 교훈적, 철학적, 경험적

**제재** 말을 빌린 경험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기: 말을 빌려 탄 경험과 깨달음

구성 서: 개인적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

결: 차마설을 창작한 이유 제시

- 자신이 깨달은 바와 글을 쓴 의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함.
- 설의적 표현, 영탄적 표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 유주의 방식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 깨달음으로 일반화함.

#### 해제 73쪽 참조

**예시 답안** 글쓴이는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소유란 것이 모두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는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 대단원 평가 문제

### [01~06]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승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①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②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승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③ 가마귀 가와가와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십 리(十里)  
어디로 갈까.

산(山)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광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④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폐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⑤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올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별겋게 부르트면서 웃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못하

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중요

###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다)에는 모두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대상의 본질에 대한 사색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④ (나)와 (다)에서는 자연을 인간이 본받을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난도

### 02 (가)~(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읽고 타인과 관계를 맷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어.
- ② (나)를 김소월의 민요조 서정시와 관련한 맥락을 바탕으로 감상해 보고,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 자유로운 근대시 형식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나)가 문학사적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
- ③ (나)를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감상해 보고, 시대 상황과 정서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
- ④ (다)를 읽고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어.
- ⑤ (다)를 읽고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게 되었어.

### 0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시어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모든 시행을 3행으로 구성해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나)는 4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여 심미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자연물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04 (다)의 내용으로 보아,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냉혹한 면이사슬과 비정한 모습을 의미한다.
- ② 자연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인간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인간의 인위적인 힘을 배제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한다.
- ④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자연이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 05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지점이다.
- ② ⑧: 화자에게 무심한 특정 대상의 성찰을 유도하는 지점이다.
- ③ ⑨: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⑩: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막막한 심정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⑤ ⑪: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잘 보여 주는 예시에 해당한다.

#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 [ 1 ] 문학의 가치

###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p. 11

- 01 ② 02 ③ 03 ③ 04 예시 답안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치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대상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 01 이 시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대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 등에서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화하고 있다.  
⑤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서 도치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 02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은 화자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감하게 된 복숭아나무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의 소망이 복숭아나무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3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리감을 느끼다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천의 빛깔'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지니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본질,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화자가 가진 선입견만으로 판단한 타인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은 '흰꽃과 분홍꽃'이다.

- 04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대상과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채점 기준	배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적절한 시구를 인용하여 서술한 경우	5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적절하게 서술했으나 시구의 인용이 미흡한 경우	3점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나 변화에 대한 비교가 미흡한 경우	1점

### 작품 2 성난 풀잎

p. 17

- 01 ④ 02 ⑤ 03 예시 답안 '성난 풀잎'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태도를 질책하는 존재로,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다.

- 01 이 글의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그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잡풀에게도 느낌이 있고,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 대항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에 대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본성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 이 글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인 '성난 풀잎'을 소재로 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 쓴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성난 풀잎'의 의미를 바탕으로 글을 쓴 의도를 서술한 경우	5점
글을 쓴 의도만 서술한 경우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작품 3** 다음에, 나머지 반도

p. 23

**01 ② 02 ⑤ 03 예시 답안** 김 주사는 인정이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으로, 어릴 적 고향 장날의 추억과 시골 장날에 만난 사람들과의 정 때문에 장사를 그만 두지 못하고 있다. **04 ④ 05 예시 답안** ④는 김 주사가 새로운 사건을 겪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01** 이 글은 '김 주사'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인물의 말과 행동, 심리, 인물의 처지와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리며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⑤ 이 소설은 인물의 윤리적 결함에 따른 풍자가 주목적이 아니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 02** 이 글은 시대의 흐름과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 주사의 일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와 이에 적응한 사람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해 소외된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는데, ④ '이동수'는 전자에, ⑤ '사람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 03** 이 글에서 김 주사는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전 세대의 전형으로 사람 간의 정이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인물의 성격과 장사를 만들 수 없는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인물의 성격과 장사를 만들 수 없는 이유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일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4점
두 가지 중 하나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2점

- 04** '사내는 후줄근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는데 ~ 한기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김 주사가 옷을 팔려고 한 인물은 김 주사처럼 빈곤한 처지에 있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5 ④** '사업'은 김 주사의 장사 품목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로, 이는 40대의 사내와 물품 판매로 인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건의 계기가 된다.

**소단원 평가 문제**

p. 30

**01 ④ 02 ④ 03 ⑤ 04 저녁 05 ④ 06 ① 07 ③ 08 예시 답안** 이 작품의 '나'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고향의 한 샘물을 네 집의 이웃이 나누어 먹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 간의 배려와 훈훈한 정, 성숙한 의식이 있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09 ⑤ 10 ③ 11 ①**

- 01**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에서 화자는 대상의 본질적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안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해 멀리서 보고 알게 되었으며 이로써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 02** 이 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대상인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자 한 시이다.  
 ②, ③ 이 시는 '-습니다', '-입니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활용한 경어체와 독백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심경과 깨달음을 차분히 고백하고 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

- 03**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은 화자가 대상을 이해하기 전 편견으로 인해 복숭아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공간이다. '그 복숭아나무 그늘'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와 교감을 나누는 곳으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 04**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시간,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어는 '저녁'이다.

- 05** 이 글에서는 '잡풀'에 대한 '농부'와 '나'의 관점이 드러나 있는데, 인간 중심적 관점과 인간도 자연을 초월한 예외적 존재가 아닌 자연의 일부라는 생태주의적 관점의 대조를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하여 성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의 경험과 사색에 대한 서술이 나타날 뿐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이 작품은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이 작품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인용이 나타나 있지만 이는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 이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이 작품은 ‘나’가 자신의 체험과 사색을 서술하고 있을 뿐 의인화된 서술자는 나타나 있지 않다.

06 ⑧는 자연의 본성에 대한 옛사람들의 인식을 소개하면서 든 예로, 자연 그대로 행해지는 일들을 나타낸 것이다. 글 쓴이는 ⑧와 같은 자연의 섭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라고 하였다.

07 ⑦은 하늘은 대상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을 의미하는 ‘공평무사(公平無私)’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②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 ④ 식자우환(識字憂患):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 ⑤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08 이 글의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한 샘물을 네 집의 이웃이 나누어 먹었던 경험을 통해 이웃 간에 배려하며 정을 나누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다.

09 이 소설은 ‘김 주사’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한다기보다 김 주사와 사내 사이의 신경 전과 같이 김 주사가 겪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할까요, 오늘 장사가 영 파리만 날리는 게 시원찮은걸까요. 우동으로 접심 때울라카는데 같이 드실립니까?”에

서와 같이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을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② ‘사내는 후줄근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는데 안에 입은 셔츠는 헐렁하고 얇은 와이셔츠였고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한기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에서와 같이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40대의 사내가 김 주사처럼 빈곤한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김 주사가 장사의 품목을 바꾸어 싸구려 의류를 팔게 된 사건과 그에 관한 생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의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10 ⑩이 소설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김 주사의 모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 ⑦과 김 주사와 함께 나이가 들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외되었지만 인정이 많은 사람들 ⑪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1 ‘네 증조할부지 보고 와서 장사를 해 보래라.’는 경직된 상황을 풀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 자신과 달리 장사가 잘되는 ‘이동수’에 대해 괜한 반감을 드러내며 통명스럽게 반응한 것이다.

##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 작품 1 길

p. 37

01 ⑤ 02 ③ 03 ③ 04 예시 답안  
방향하는 화자와 달리 기려기는 공중의 갈길이 있는 존재로, 갈곳 없는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01 이 시는 ‘오늘은 / 또 몇십 리 / 어디로 갈까. //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 /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에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갈 곳 없는 화자의 처지로 인한 나그네의 비애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가마귀 가와기와 울며 새었소.’에서는 ‘가마귀’라는 객관적 상관물에 화자가 느끼는 비애의 감정을 이입하여 마치 ‘가마귀’가 슬피 우는 것처럼 표현하는 감정 이입이 사용되고 있다. ③에 ‘서러운 풀빛이 질어오겠다.’에서도 화자의 감

정을 ‘풀빛’에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서려운’은 화자의 정서가 표출된 시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에서는 역설법이 쓰였다.
- ②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 멀은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에서는 은유법이 쓰였다.
- ⑤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 성자처럼 뺨밭에 고개를 숙이고’에서는 직유법이 쓰였다.

**03** ‘산’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가 현재 어디로도 갈 곳이 없는 슬픈 상황임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산’은 일제 강점기에 갈 곳을 잃어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리운 고향의 의미는 아니다.

**04** ‘기러기’는 화자와 달리 공중의 길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로, 방향성을 상실하고 열십자 복판에 서서 방황하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화자와 기러기의 대조적 처지는 갈 곳을 잃고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절망감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화자와 ‘기러기’의 대조적 처지와 ‘기러기’의 역할을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작품 2 엄마의 말뚝 2

p. 43

**01 ④ 02 예시 답안**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 속 주인공 ‘나’에 의해 이야기가 서술되며, ‘나’의 시점에서 어머니를 관찰하며 생각한 점과 자신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은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독자는 인물이 겪는 사건과 아픔에 공감하기 쉽다. **03 ③ 04 ④**

**05** ‘아들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상처와 한’을 의미한다.(한국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한) **06 ⑤**

**07 ① 08 ③ 09 ① 10 예시 답안** ‘그 짓’은 오빠에게 했던 방식과 같이 화장하여 그 뺏가루를 개풍군이 보이는 강화도에서 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분단이라는 괴물과 맞서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를 거역할 수 없기에 어머니의 뜻에 따르려 한다.

**01** 다리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는 수술의 후유증으로 환각 증세가 나타나 한국 전쟁 당시 아들이 ‘인민군 군관’에 의해 총에 맞아 죽는 상황을 겪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는 것이 저승 사자가 아닌 ‘인민군 군관’임을 알아챈다.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더 나았을 것을’은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어머니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에 공포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02** 이 소설의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 ‘나’로, 어머니의 수술 후 벌어지는 일과 그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글의 시점과 그 특징 및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글의 시점과 그 특징 및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일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3점
글의 시점과 그 특징 및 효과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3**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가 ‘현재–과거–현재’로,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구성인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오빠의 죽음과 관련된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인물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04** 보위부 군관이 작별하려 왔을 때 총을 겨누며 진실을 말하라고 협박하고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보위부 군관에게 매달렸으므로 오빠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제시된 (나), (다)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인해 과거 한국 전쟁 시 인민군 군관에 의해 아들이 죽음을 맞은 사건을 다시 겪는 장면이고, 말뚝의 속성은 ‘땅에 두드려 깊이 박힌 것’이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시된 (나), (다)와 <조건>을 바탕으로 할 때 ‘엄마의 말뚝’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아들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상처와 한’이라고 볼 수 있다.

**06**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지만, 아들의 한을 덜어 주기 위해 삶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지는 않다. 어